

어디서 지속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네. 그럼, 다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밤 “큰 질문(big question)”  
시간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밤의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지속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께 아주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시내를 걷다가,

아무나 붙잡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상상할 수 있으시죠?

사람들은, ‘당연하죠.

당신 좀 이상하군요.’하고 답하겠죠?

어느 누구도 ‘전 제 평생에 정말로  
불행하길 원해요.’라고 말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 것과

어디서 찾는지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놀라운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 분께 오는 사람은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와, 그를 주로 삼기 전까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의 과거도 짊어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

그를 주로 삼고, 인격적으로 따르기 전까지,

우리 저변에 깔린 근본적이고 깊은 의문들로

여전히 그 답을 얻지 못해 갈급해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말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기적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기적이고 깊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하고 깊은 기쁨을 필요로 하고  
경험하도록 설계되어있기에,  
이러한 깊은 기쁨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굶주릴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에  
공감하시는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쁨 또는 목적,  
의미 또는 아낌없고, 끝없는 위대한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삶의 쳇바퀴에서  
잠시 멈춰 있을 때, 여러분 가슴 깊이  
깊이 찾고 있는  
무언가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굶주림과 아픔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두 가지 정말 흔하지만  
매우 다른 모습을 피하시길 권해도 될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머지않은 짧은 시일 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음에 얻을 직장이나,  
다음 이성친구,  
또는 다음에 살 가구나,  
다음 쇼핑, 또는 그 다음……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조그만 더 가면,  
나의 깊은 수준의 필요를 정말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며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만족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다음 것 쫓아다니면서,  
찾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위험한 인생의 행로는  
여러분이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뭘. 영원한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저 현재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망하였고,  
지금은 그저,

‘뭘, 그게 인생이지.  
이것보다 더 좋아지진 않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지내세요?’하고 물으면,

그저 ‘네. 잘 지내요. 전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께 던지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삶이  
그저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만약 삶이 단지 ‘저는 괜찮습니다.’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께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위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문제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아주 깊은 수준까지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 것일까요?

의미하지 않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동굴로 침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모든 불을 끄고,

안짱다리하고 앉아,  
명상하는 것이요.

아시다시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향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즐길 수 있고,  
즐기도록 계획된 좋은 선물들을

향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기로 권유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  
매일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럼, 각 조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눠보세요.

몇 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